

민족주의의 근대론적 성찰

— 정치와 경제의 근대적 역동성

강 진 용 (경기대학교)
(jwkang@kyonggi.ac.kr)



국문요약

이 논문은 근대론적 관점에서 근대성과 관련된 민족주의 이론을 재평가하고 정치경제적 복합물로 작동하는 민족주의를 성찰한다. 독일의 관념론과 맑스의 이데올로기론 사이에서 민족과 민족의식은 실재와 허구의 극단에서 대비될 수 있었다. 이러한 이분법에서 정치적 근대성의 산물로서 민족주의는 정치적 이념, 이데올로기적 독트린, 국가의 정치운동 등으로 평가되었고, 경제적 근대성의 맥락에서는 산업화와 자본주의의 영향력이 강조되었다. 민족을 실재와 상상의 양상물로 평가하는 이 논문은 정치와 경제, 국가와 자본주의의 상호작용에서 근대성과 민족주의를 분석하고 이를 통해 타정체성과 결합되어 다양한 방식에서 힘을 발휘하는 민족주의의 역동성을 강조한다.

주제어 : 근대론, 근대성, 민족, 민족주의, 정치경제적 복합물

I. 들어가며

이 논문은 근대론의 견지에서 민족주의를 재평가하고 이를 통해 정치와 경제의 근대적인 복합물로 발전하는 민족주의의 역동성을 분석한다. 정치와 경제가 결합된 근대의 구성물로서 민족주의는 그동안 자본주의의 허구적 이데올로기 또는 문화적 구성물, 산업화를 통해 근대 사회를 구성하는 정치적 원리, 엘리트의 정치적 이념 혹은 독트린, 국가의 정치운동, 사회적 통합의 도덕화 방식 등으로 평가되었다. 스미쓰(Smith 1991, 73)가 “실재적 혹은 잠재적 민족을 구성하기 위해 일부 구성원들이 전체 인구의 자율성, 단일성, 정체성을 실현, 유지하기 위해 벌이는 이데올로기적 운동”으로 정의했듯이 민족주의는 민족(nation)¹⁾과 관련된 근대성의 산물로서 민족(국가)을 추구하는 국가 혹은 엘리트의 이념적 운동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국가가 이끄는 민족주의를 낳은 근대적 변수로서 네오맑스주의자들이 강조하는 자본주의의 영향력 또한 간과할 수 없을 것이다.

이 논문은 국가의 이념적 운동과 자본주의의 영향력을 민족주의와 민족을 낳은 핵심적 요인으로 간주하면서 이 두 요인의 복합적 구성과 역동성을 강조한다. 기존의 민족주의 연구는 정치경제적 근대성의 복합적 산물로서 발전한 민족주의의 특성을 간과하고 정치적, 경제적 근대성의 이분법을 전제로 한 단절적 인식과 도구론적 일반화를 재생산해 왔다. 특히 근대론²⁾은 민족주의가 부르주아 이데올로기에 불과하다는 맑스(Marx and Engels 2002)의 논리가 무색할 정도로 민족주의를 분석하는 것에서 정치와 경제, 국가와 자본주의 사이의 단절적 인식과 도구론적 분석들에 의존했다. 이것은 1789년 프랑스 대혁명의 정치적 이념과 운동이 확산된 것에서 민족주의의 기원을 찾는 흐름과 민족주의를 18~19세기 자본주의의 구성물로 바라보는 네오맑스주의의 흐름 사이에서 두드러졌다. 그러나 정치적

-
- 1) 이 글은 서구와 한국의 개념사적 간극에도 불구하고 네이션을 민족으로 번역, 이해한다.
- 2) 민족의 기원과 발전에 주목한 논쟁은 근원론(Armstrong 1982; Geertz 1973; Smith 1986)과 근대론(Anderson 1991; Gellner 1983; Hobsbawm and Ranger 1983) 사이에서 다루어졌다. 근원론과 근대론의 가장 큰 차이는 근원론이 과거의 종족이 근대 민족으로 발전했다는 논리를 주장하는 반면 근대론은 민족이 근대에 들어 민족주의에 의해 만들어졌다는 논리에 기반한다는 것이다. 근원론은 다시 민족이 종족의 원시적 형태 혹은 친족적 네트워크가 확대된 결과로 나타난 것이라는 원초론(Grosby 2005)과 전근대의 종족적 실체가 지속적, 반복적으로 생존하여 근대 민족으로 이어졌다는 연속론(Armstrong 1982)으로 나누어진다. 이와 달리 이 글의 분석대상인 근대론은 도구주의, 구성주의로도 불리며 민족을 민족주의에 의해 정치적으로 구성되는 근대적 산물로 이해한다. 근대론은 민족을 정치적 이념/운동, 산업화, 자본주의 등의 다양한 맥락에서 이해하지만 이런 차이에도 불구하고 민족이 민족주의에 의해 만들어졌다는 것에는 이견이 없다.

근대성을 중심으로 민족주의를 평가하는 흐름에서는 자본주의와 계급의 동학이 저평가된 반면 자본주의의 구성물로 민족주의를 바라보는 흐름에서는 국가, 엘리트의 이념과 대중운동의 역할이 간과되었다.

이러한 근대론의 한계 속에서 근대성은 물론 현대 사회의 민족주의를 분석하는 연구들은 근대성의 복합성과 민족주의의 역동성을 깊이 있게 성찰하지 못했다. 헤겔과 맑스, 맑스와 베버의 고전 이론에서 비롯되어 국가론 등에서 국가 중심적 접근 대 자본주의 결정론으로 표출된 이분법이 인문사회과학의 인식론적 분석틀을 지배했고 이것은 또한 민족주의 연구의 형해화를 조장했다. 따라서 이 연구는 원론적인 성찰이라는 한계 속에서도 근대성과 민족주의의 근본적인 속성을 성찰하고 이것이 현대 민족주의 연구에서 갖는 분석적 함의를 이끌어내고자 한다. 정치와 경제, 국가와 자본주의의 두 축을 민족주의를 구성하는 충분조건이 아닌 필요조건으로 이해함으로써 이 논문은 두 근대성의 얼굴이 만나 타정체성과 결합되어 변화하는 역사적 산물로서 민족주의의 역동성을 탐색한다.

II. 관념론과 이데올로기를 넘어서

헤겔은 『역사철학강의』, 『법철학』 등에서 관념론에 입각해 국가와 민족정신을 설명했다. 헤겔(2008a, 2008b)에 따르면, 이성이 역사의 주체이자 발전의 원동력이며 역사의 발전 과정에서 정신을 실현한다. 따라서 세계에서 역사의 실체를 이루는 것은 자유를 추구하는 정신의 발전이 되는 것이다(헤겔 2008a, 26, 29). 또한 현실에서 정신의 완전한 실현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 국가이다(헤겔 2008a, 47). 헤겔(2008a, 71)은 “세계사란 정신이 스스로를 자유라고 인식하는 자유의식의 발전 과정과 이 의식에 의해서 산출되는 자유의 실현 과정을 나타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세계사는 이성, 정신, 자유의식의 궁극적인 작품이며 세계사에서 구현되는 정신은 민족정신과 국가의 존폐를 결정하는 최고 법적인 것이다(헤겔 2008b, 579). 이와 관련해 헤겔(2008a, 61, 71, 82)은 민족정신이 국가를 정신의 완전한 실현 형태로 만드는 바탕이 되며 국가를 형성한 민족정신만이 보편적 원리를 간직하는 세계사적 존재가 된다고 강조했다. 헤겔의 철학은 정신의 관점에서 국가의 발전을 정당화하고 국가의 토대로서 민족과 민족정신을 설명했으며 국가(정신)와의 관계에서 민족과 민족정신의 실재를 모두 인정했다.

이에 대해 맑스(Marx 1975, 244)는 1843년 〈헤겔법철학 비판 서문〉에서 시민사회가 만들어낸 국가/민족의 정체성을 종교와 같은 허구적 산물로 묘사하며 헤겔의 관념론을

반박했다. 헤겔이 주장한 민족과 민족정신을 모두 부정한 것이다. 맑스(Marx and Engels 1970, 41)는 1844년 『독일 이데올로기』에서도 이데올로기를 ‘허위의식’(illusion)으로 규정했다. 국가는 시민사회의 옆과 밖에 존재하는 분리된 실체로서 부르주아 계급의 내외적 목적을 위해 활용되는 조직일 뿐인 것이다(Marx and Engels 1970, 80). 시민사회가 대내적으로 국가를 구성하고 국가가 대외적 관계에서 자신을 표현할 때 민족으로 치장할 뿐이라는 것이다(Marx and Engels 1970, 57). 또한 맑스는 1848년 『공산당선언』에서 민족주의를 통해 상상된 민족은 곧 사라질 것이라고 주장했다(Marx and Engels 2002, 241). 맑스의 민족주의론은 민족과 민족주의를 계급 지배의 도구이자 허구의 이데올로기로 해석한 것이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민족주의가 사회주의 국가에서 강하게 드러나는 등 현실은 맑스의 예측과는 정반대로 흘러갔다. 맑스(Marx 1963) 역시 나폴레옹 3세의 통치에서 민족의 자율성을 발견했고, 민족의 실재에 좀 더 다가선 그람시(Gramsci 1995)는 민족주의를 민중들의 집합의지를 산출하는 자본주의 국가의 헤게모니(hegemony)로 평가했다. 더욱이 스탈린은 민족의식을 부정하는 대신 민족의 실재를 인정하며 맑스의 견해를 부정하기도 했다. 스탈린(Stalin 1953, 307)은 민족감정, 민족주의 등 민족의 감정적, 이데올로기적 요소를 부정했지만 맑스와 달리 ‘공통된 언어, 영토, 경제생활, 문화로 구성된 공동체’로 민족을 정의하며 그 실재를 인정했던 것이다. 혁명으로 소비에트 국가를 세운 레닌은 반제국주의론을 들고 나와 제3세계 식민지 국가의 민족주의를 옹호하며 맑스의 모순을 일시적으로 봉합했고 스탈린은 민족의 실재를 인정하며 민족주의를 자신의 통치 담론으로 활용했던 것이다.

이러한 논쟁에서 민족은 ‘실재’와 ‘이념’의 두 얼굴을 갖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Gellner and Smith 1996, 361). 이것은 스미쓰(Smith 2009, 41)가 민족을 ‘실재’(reality)와 ‘담론’(discourse)의 공동체로 정의한 것과 통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베버는 국가를 “주어진 영토 내에서 물리력의 합법적 사용의 독점을 주장하는 인간 공동체”(Weber 1958, 78)로, 민족을 “국가 안에서 자신을 충분히 드러내는 감정 공동체이며 정상적으로는 자신의 국가를 만드는 경향이 있는 공동체”(Weber 1958, 176)로 정의했다. 베버의 시각에서 민족은 국가의 경계 안에 위치하며 인간 공동체라는 ‘실재’의 측면과 구성원의 감정적 통합 즉 ‘상상’의 측면이 결합되는 것이다. 이러한 실재와 상상의 양상불에서 민족은 두 얼굴이 결합되는 정도와 방식에 따라 다양한 형태를 갖는다. 국가를 구성하는 ‘의지’(will) 또는 ‘이념’(idea)을 강조하는 주관론적, 근대론적 이해와 ‘자연’(nature) 또는 ‘사물’(thing)를 강조하는 객관론적, 근원론적 이해의 오랜 이분법 역시 실재와 상상의 양상불에서 재평가될

수 있다.³⁾

일찍이 헤르더는 민족(Volk)을 언어 집단과 동일시하여 국가를 ‘인공적 산물’로, 민족을 ‘자연의 산물’로 간주했고 정치 공동체인 민족국가(Volk-state)는 자연과 인간의 정치가 만난 자연적 필요의 산물로 평가했다(박의경 1995, 337). 민족은 기본적으로 혈통을 중심으로 하는 문화적 산물이라는 것이다. 피히테(1987) 역시 1807년 나폴레옹의 독일 점령에 항거하며 〈독일 민족에게 고함〉이란 연설에서 혈통과 언어를 중심으로 민족을 옹호하고 이를 바탕으로 독일 민족의 역사적 존엄성을 강조했다. 반면 〈민족이란 무엇인가〉라는 글에서 르낭(Renan 1990, 14)은 순수한 인종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혈통의 관점에서 민족을 이해하는 것은 완전히 허구라고 주장했다. 종족적으로 가장 고상한 국가로 인식되는 영국과 프랑스가 오히려 가장 많이 피가 섞였으며 독일 역시 예외는 아니었다는 것이다. 르낭은 ‘언어=종족=민족’이라는 피히테의 명제를 반박하며 다음과 같이 민족에 관해 설명했다.

인간은 인종의 노예도, 언어의 노예도, 종교의 노예도, 강물의 흐름과 산맥의 방향의 노예도 아니다. 건전한 정신과 뜨거운 심장을 갖는 인간들의 대결집이 우리가 민족이라 부르는 도덕적 양심의 종류를 창조하는 것이다. 이 도덕적 의식이 공동체의 이익 속으로 개인을 포기하게 만드는 희생을 관철하며 그 힘을 증명한다면 그것은 정당하고 존재할 권리를 갖는다(Renan 1990, 20).

르낭에 따르면 민족은 혈통, 인종, 언어, 종교와 같은 자연의 산물이 아니라 인간의 의지에 의해 만들어지는 정치 공동체이다. 민족은 영원히 존재하는 자연의 공동체가 아니라 개인이 ‘매일의 국민투표’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의지의 산물인 것이다(Renan 1990, 19). 이로써 민족은 의지와 자연의 두 얼굴이 결합된 ‘이념적 실재’(ideal reality)(Renan 1990, 20)이자 인간 집단과 사회적 관계에서 구성되는 ‘관계적 실재’(relational reality)(Hroch 1985, 3)가 되는 것이다. 민족은 실재하면서도(real) 구성되는(constructed) 것이다(Hroch 1998).

이 논문에서 실재와 상상의 양상들로 평가되는 근대 민족의 특성은 근대성과 민족주의의

3) 주관론적 접근과 객관론적 접근은 민족의 구성요소를 둘러싼 논쟁을 반영한다. 민족을 구성원들의 소속감을 바탕으로 한 주관적인 태도와 의식의 관점에서 평가하는 주관론적 민족 개념은 한스 콘 등 영미학과에서 제기되어 주로 근대론과 통하는 것으로 이해되었다. 반면 독일학과에서 제기되어 혈통, 종족, 언어, 종교 등의 구성요소를 강조하는 객관론적 민족 개념은 근원론과 통하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다면적 복합성을 해명하는 중요한 열쇠가 될 수 있다(강진웅 2018). 이 논문은 정치와 경제의 근대적 역동성이란 측면에서 정치적, 경제적 근대성에서 설명된 민족주의 이론들을 재평가한다.

Ⅲ. 정치적 근대성에서 본 민족주의

1. 근대 이념과 민족주의

민족주의는 근대 서구, 특히 18세기 말 프랑스 대혁명에서 시작되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이다. 1789년 7월 14일 바스티유 감옥의 습격으로 점화된 프랑스 대혁명은 1793년 1월 21일 루이 16세가 단두대의 이슬로 사라지며 정점에 올랐다. 앙시앵 레짐을 붕괴시킨 대혁명은 자유, 평등, 형제애를 표출한 민주주의와 개인을 민족으로 통합시킨 민족주의의 이념을 확산시킨 것이다. 또한 맑스가 대혁명을 ‘부르주아 혁명’으로 일컬었듯이 자본주의와 노동운동이 성장하여 계급 갈등이 표면화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민족주의는 계급 갈등 등의 사회적 분열을 통합하며 근대 민족 공동체를 형성해 갔다. 루소(2013)가 ‘일반의지’(general will)의 개념에서 설명했듯이,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공동체의 통합과 모순적인 관계에 놓일 때 일반의지로서의 민족주의는 개인과 분열된 집단을 민족에 통합시킬 수 있었다. 이러한 배경에서 프랑스는 1789년 대혁명, 1792년 공화정, 1804년 나폴레옹의 제정, 1852년 나폴레옹 3세의 제정으로 이어진 역사적 과정에서 국민교육을 강화하며 민족국가 체제를 수립했고 이로써 민족주의의 이념은 유럽 전역으로 확산되었다.

프랑스 대혁명 이후에 민족주의가 확산된 역사적 변화를 성찰하며 한스 콘(Kohn 1967, 10-11)은 민족주의를 “나의 의식이 그룹의 의식에 통합되어 우리 의식과 그들의 의식을 구분하는 마음의 상태이자 의식의 행동”으로 규정했다. 민족주의가 ‘우리와 그들의 이분법’을 통해 민족국가를 지향하는 민족의 정치 공동체를 만들어 냈다는 것이다. 1789년 가을 프랑스 대혁명의 민족방위군(National Guard)이 ‘당신은 민족의 일원입니까?’라는 암호를 사용하며 적군과 아군을 구분했던 예가 바로 그러한 민족주의의 특성을 잘 드러내 준다(Hunt 1984, 20). 새로운 정치 공동체를 만드는 과정에서 우리와 그들을 가르는 인위적 과정은 불가피한 정치적 선택의 과정이었고 이것은 프랑스를 넘어 유럽 전역에서 자신의 독립된 정치 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을 가능하게 했다. 이러한 변화를 두고 콘(Kohn 1967, 16)은 민족주의를 ‘핏줄의 외침’(call of blood)이 아니라 ‘이념의 힘’(power of idea)이라고

주장했다. 민족주의는 자연의 현상이나 영속적이고 자연스러운 법칙의 산물이 아니라 역사적, 사회적, 지적 요인들이 결합한 산물이라는 것이다(Kohn 1967, 6). 또한 민족은 허구적인 산물이 아니라 공통된 대중의 의식이 주권국가를 구성한 역사적 실재가 된다(Kohn 1967, 19). 이처럼 근대적 이념과 정치 공동체를 지향하는 구성원의 의지와 단결을 강조하는 콘의 이론은 18세기 프랑스 민족주의 기원론 및 주관론적 민족 개념을 근대론적 시각과 결합하여 이해했다. 실재와 상상이 결합하는 민족의 개념과 민족의 이념적, 정치적 구성을 성찰한 것이다.

콘의 연구가 근대의 이념적, 사회적 변화가 구성원의 정체성에 영향을 끼친 측면을 강조했다면, 케더리의 연구는 정치 엘리트에 의해 창조된 이데올로기를 강조했다. 케더리(Kedourie 1993, 1)는 민족주의를 19세기 초에 유럽에서 창조된(invented) 하나의 ‘독트린’으로 평가했다. 프랑스 대혁명 이후 등장한 근대 유럽의 현상으로서 민족주의를 정치적 이데올로기로 평가한 것이다. 민족주의는 ‘민족자결’(national self-determination)의 독트린으로서 자기결정의 산물인 민족을 형성하고 개인을 주권적 국가를 형성하는 민족으로 통합시켰다는 것이다(Kedourie 1993, 23, 67). 그러나 케더리의 민족주의론은 맑스주의자들이 민족주의를 부르주아 이데올로기 혹은 자본주의의 구성물로 환원하는 것과 유사하게 반대급부로 민족주의를 엘리트의 정치 이데올로기로 귀속시키는 한계를 드러냈다. 콘에게서도 부분적으로 드러나는 것이지만 케더리의 민족자결론에는 민족을 구성하거나 이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적 변화와 계급구조에 대한 고려가 배제되어 있다. 또한 위로부터의 동원이 아래로부터의 참여와 어떻게 결합되는가의 문제 역시 제대로 해명하지 못했다. 이러한 측면에서 단순한 계급 혹은 자본주의의 구조가 아니라 엘리트, 지식인과 대중이 결합하는 동학에서 민족의식이 만들어지는 사회운동을 분석하는 것이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

2. 국가의 정치운동과 민족주의

근대의 정치적 이념을 강조하는 접근은 민족의 근대적 구성을 강조한 의의에도 불구하고 근대국가의 군사적, 경제적 동원 혹은 정치운동의 측면에는 큰 관심을 두지 않았다. 민족을 창조하는 민족주의 역시 국가와 엘리트의 사회적 동원이 있어야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민족주의에서 국가의 역할은 결코 간과될 수 없는 것이다.

이에 대해 톨리(Tilly 1994)는 15세기 말부터 20세기 말까지 유럽의 국가 형성과 민족주의를 ‘국가가 주도하는 민족주의’(state-led nationalism)와 ‘국가를 추구하는 민족주

의'(state-seeking nationalism)가 결합된 과정이라고 평가했다. 서유럽의 경제적, 군사적 경쟁 과정에서 형성된 근대국가들은 19세기 이후에 확산된 민족주의를 통해 민족국가 체제를 확립했다는 것이다(Tilly 1990). 만(Mann 1993, 730-736) 역시 근대국가의 정치적, 군사적 발전 과정에서 민족주의와 민족이 형성되었다고 주장했다. 틸리와 만이 근대국가가 전쟁과 징세를 수행하는 동원의 과정에서 민족주의가 형성되었다고 주장한 반면, 기든스는 근대국가의 영토적 주권과 행정적 통제가 확립되는 과정에서 민족주의가 형성되었다고 진단했다. 기든스(Giddens 1985, 212)는 국가가 주권적 영토에 대한 통일된 행정적 통제를 달성했을 때 민족주의가 작동한다고 보았고 근대국가는 주권, 시민권, 민족주의가 결합되는 과정에서 발전한다고 주장했다. 기본적으로 민족주의는 근대국가의 정치적 산물이며 근대국가의 발전과 궤를 같이 한다는 것이다.

이 연구들은 국가의 군사적, 경제적, 행정적 근대화에 초점을 두며 민족주의의 동력을 근대국가에서 찾고자 했지만 실제 분석은 근대국가 그 자체에 초점을 맞춘 것은 아니었다. 본격적으로 근대국가의 역할을 강조하며 국가의 정치운동에서 민족주의를 파악한 것은 브로일리였다. 국가 및 정치운동 중심의 근대론을 견지한 브로일리(Breuilly 1994, 8)는 이념이 아닌 운동으로, 이데올로기가 아닌 정치로 민족주의를 이해할 것을 주문했다. 근대국가의 수립 과정에서 민족주의는 분리, 개혁, 통일의 형태로 국가를 구성, 재구성하는 정치운동이 되는 것이다(Breuilly 1994, 9). 여기서 브로일리(Breuilly 1994, 398)가 분석한 민족주의는 '민족'(nationality)을 추구하는 민족주의와는 결이 다르다. 콘, 케더리 등이 주장하듯이 민족주의가 반드시 민족(국가)를 구성하거나 이것과 함께 발전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브로일리는 이데올로기와 결합된 정치운동의 형태에서 민족주의를 폭넓게 이해하면서 민족(국가)가 아닌 근대국가의 형성 과정에서 민족주의를 분석했다. 이 시각은 이념 및 이데올로기 중심의 민족주의론과 달리 정치운동을 강조하고 자본주의의 구성물로 보는 민족주의론과 달리 국가의 중심적 역할을 강조한 것이다.

3. 민족과 민족의식의 변증법

근대론적 관점에서는 민족과 민족국가 체제가 18세기 후반에 시작하여 19세기에 형성되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이다. 근대론은 이 시기에 민족주의가 민족을 창조했다고 주장하며 정치적 동원과 함께 산업화나 자본주의가 그 발전의 원동력이 되었다고 평가한다. 그러나 쉘츠(Schulze 1996)에 따르면 국가와 민족은 중세 또는 근세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상호 관련되어 왔고 이 과정에서 민족은 군주에 종속된 개인들의 집합체에서 주권적

공동체를 실현한 전체 인민의 집합체로 변화되었다. 정치적 동원이나 경제적 근대화와 상관없이 민족주의와 민족의 형성은 그 이전의 시기로 거슬러 올라가 좀 더 장기적인 맥락에서 파악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접근은 민족주의 이전에 전근대 민족이 이미 형성되었고 이것이 근대 민족으로 이어졌다는 근원론과는 결이 다른 것이다.⁴⁾

따라서 근대론의 함의를 근세의 시기로 확장하여 민족과 민족의식(national consciousness)의 상호관계를 성찰해 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슐츠, 커너, 그린필드, 호로흐와 같은 이론가들은 민족의식의 역사성을 강조하며 민족주의와 민족의 관계를 역사적인 관점에서 파악했다. 궁극적으로 민족주의가 민족을 창조하는 인과관계가 성립한다고 할지라도 그 과정 전반을 고려하면 민족과 민족주의는 변증법적 발전의 과정에 놓일 수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그린필드는 16세기 초 영국에서 민족주의가 형성되었고 ‘사회적 의식’(social consciousness)으로서 민족주의가 민족과 상호작용하며 민족국가 체제를 확립했다고 주장했다. 그린필드(Greenfield 2001, 24)의 정의에 따르면, 민족주의는 근대성의 구성적 요소이자 조직화의 원리로서 도덕적 질서의 기초, 가치의 근원, 민족 정체성 및 사회적 통합을 이끈 인식적, 도덕적 조직화의 방식이다. 16세기에 형성된 영국의 민족주의에서 중세 로마 교황의 권위에 도전한 종교개혁은 민족적 주권의 원리를 제시하고 정치적, 사회적 개혁들과 함께 개인주의, 자유주의, 민주주의의 가치를 민족주의로 통합시킬 수 있었다. 근세로부터 사회의식의 형태로 발전한 민족의식/민족주의가 사회개혁과 국가 경쟁의 상황에서 민족과 맞물려 발전한 것이다. 이로써 영국의 민족주의는 16~17세기에 국민적 주권의 논리를 확대하고 18세기 중반부터 19세기 초반까지 진행된 산업혁명을 이끌 수 있었다.

그린필드가 근세의 시기에서 민족과 민족주의의 상관관계를 분석했다면 호로흐는 18세기에서 20세기에 걸쳐 진행된 민족운동과 자본주의, 민족의식과 사회구조의 상관관계를 분석했다. 호로흐(Hroch 1985, 26, 178)가 강조한 것은 민족이 자본주의 또는 계급적 구조에 의해 획일적으로 영향을 받거나 민족운동을 지향하는 이념 혹은 민족주의에 의해 단순히 창조된 것이 아니라 민족의식과 객관적 관계의 변증법적 산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4) 영속론은 민족주의를 근대적인 것으로 인정하지만 민족의식을 전근대로 확장하여 민족의 전근대성을 주장한다. 예를 들어 고대로부터 19세기에 이르는 민족의 영속적 발전을 분석한 암스트롱(Armstrong 1982, 7-8, 291)은 신화, 상징, 커뮤니케이션이 결합되는 ‘상징적 경계의 기제’(symbolic boundary mechanism)를 통해 종족이 민족으로 발전했다고 주장했다. 스미쓰(Smith 2009) 역시 암스트롱의 영속론과 근대론을 결합하여 에쓰니(ethnie)가 근대 민족으로 탈바꿈했다고 주장하며 ‘종족상징주의’(ethno-symbolism)를 대안적 모델로 제시했다. 이 연구들의 공통적인 관심사는 근대와 관련된 전근대의 민족의식에 관한 것이었다.

(Hroch 1985, 3, 1998, 104). 근대적 실재로서 초기의 민족이 존재했고 19세기를 거쳐 민족운동을 향한 사회적 관계와 의식이 성장하여 근대 민족이 확립되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들은 민족이 단순한 이데올로기 혹은 자본주의의 구성물이었다는 근대론의 도구주의적 오류를 넘어서는 의의를 가지며 민족주의를 정치적, 경제적 근대화의 단순한 이분법이 아닌 그 복합물로 이해하는 대안적 틀을 제시해 준다. 이러한 민족주의의 특성은 경제적 근대성과 관련된 연구들의 성찰에서도 발견될 수 있다.

IV. 경제적 근대성에서 본 민족주의

1. 산업화와 민족주의

근대화의 여러 기제 중에서 '산업화'의 관점에서 민족주의를 분석한 것은 체코 출신 영국의 철학자, 사회인류학자 어니스트 겔너였다. 겔너(Gellner 1983, 1)는 『민족과 민족주의』에서 정치적 정당성의 이론으로서 민족주의를 “정치적이고 민족적인 단위가 일치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정치적 원리”로 정의했다. 이러한 정치적 원리에 의해 창조되는 민족은 “인간의 확산과 충성심 및 연대성의 가공물(artefacts)”이 되는 것이다(Gellner 1983, 2). 자연의 사물로서의 민족은 하나의 신화이며 민족주의가 기존의 문화를 바꾸거나 고안한(invent) 결과가 민족이라는 것이다(Gellner 1983, 48-49). 다분히 베버에게서 영향을 받은 겔너(Gellner 1983, 142-143)의 이론에서 민족은 민족주의에 의해 가공된 산물이자 근대 민족국가로 수렴되는 실재이기도 하다. 이러한 배경에서 겔너는 전근대 농업 사회에서 근대 산업 사회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산업화가 민족주의를 낳은 인과관계를 분석했다. 기술과 생산력의 발전에 바탕을 둔 산업화가 문자해독의 교육, 직업적 유동성을 낳은 노동분업 및 커뮤니케이션의 확장 즉 민족주의를 통해 고도문화(high culture)의 산업 사회를 낳았다는 것이다. 따라서 고도문화의 산업 사회는 교육/커뮤니케이션 시스템의 보호자인 국가가 주도하는 민족주의와 같은 여정을 달리며 이 과정에서 민족이 창조된 것이다.

그러나 민족주의 이론의 선구자로 불리는 겔너의 시각은 여러 비판에 직면했다. 먼저 산업화 이전에 민족주의가 태동하거나 20세기 비서구의 민족주의에서 산업화를 동반하지 않은 사례들이 있었던 것은 겔너의 분석에 대한 중요한 반례가 될 것이다(벨러 2007, 54). 이것은 경제적 근대성으로 민족주의를 설명하는 이론들의 치명적인 약점이 될 것이다.

또한 산업화 자체가 아니라 노동분업과 커뮤니케이션 즉 산업화의 기능에 의해 민족주의가 형성된 것이라면 산업화와 민족주의의 인과관계는 그만큼 적실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국가가 교육과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민족주의를 주도한 것이라면 국가의 기능이 산업화와 민족주의의 매개로 작동한 것은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경제적 근대성의 결과로 설명된 민족주의가 정치와 경제가 만나 결합된 역사적 과정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자본주의와 민족주의

1) 부르주아 민족과 전통의 창조

겔너가 산업화를 통한 민족주의의 확산을 논했다면 홉스봄, 앤더슨, 네언은 각기 다른 색깔을 드러내며 18~19세기 이후 자본주의의 구성물로 형성된 민족주의를 탐색했다. 먼저 영국의 맑스주의 역사학자 에릭 홉스봄(Hobsbawm 1990, 9-10)은 『1780년 이후의 민족과 민족주의』에서 겔너의 민족주의 개념을 수용하며 민족주의가 창조한 민족이 근대 민족국가 형성과 궤를 같이 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홉스봄(Hobsbawm 1990, 38)은 18세기 후반 프랑스 대혁명이 낳은 자유주의가 아니라 19세기 중반 ‘부르주아적 자유주의’가 근대 민족주의와 민족을 낳았다고 주장했다. 맑스의 계급론을 계승한 홉스봄에 따르면, 1870년부터 1918년까지 19세기 ‘민족(nationality)의 원리’에 따라 민족주의가 대중동원의 정치를 통해 민족국가 체제를 확립하고 1차 세계대전이 끝나는 1918년부터 2차 세계대전이 끝나는 1950년까지 월슨/레닌주의에 기반하여 ‘부르주아 민족’의 전성시대를 열었다는 것이다.

홉스봄은 『전통의 고안』이란 또 다른 저서에서도 전통을 창조하여 민족국가를 정당화하는 민족주의를 분석했다. 홉스봄(Hobsbawm and Ranger 1983, 1)에 따르면, ‘고안된 전통’(invented tradition)은 공공연하거나 암묵적인 규칙들의 반복을 통해 과거와의 지속성을 암시하는 가치와 규범들을 구성하는 행위, 의식 또는 상징적 본성의 세트를 의미한다. 여기서 과거 역사와의 지속성은 대부분 꾸며낸(factitious) 것이며 과거와 관련된 형태를 취하거나 거의 의무적인 반복을 통해 과거를 설정하는 새로운 상황을 만들어 냈다는 것이다(Hobsbawm and Ranger 1983, 2). 예를 들어 씨족을 표시하는 격자무늬의 천으로 짠 킬트를 입고 백파이프의 악기를 다루는 스코틀랜드인의 전통은 고대로부터 존재했던 것이 아니라 근대에 들어 인위적으로 발명된 것에 불과했다는 것이다(Trevor-Roper 1983, 15). 이 전통은 대부분의 스코틀랜드인들이 야만적 문화로 간주했던 고지대(Highland)의 문화를 본 딴 것이었다. 스코틀랜드는 잉글랜드와의 통합 전후로 야만적으로 보이는 고지대

의 전통을 스코틀랜드 전체 집단의 정체성으로 둔갑시켰다는 해석이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에서 홉스봄은 전통 창조 등에서 민족국가의 자율성을 강하게 암시하면서도 민족국가를 ‘부르주아 민족’으로 환원하여 평가했다. 홉스봄이 민족주의를 부르주아 민족과 같은 것으로 보는 등 맑스의 도구론적 근대론을 계승하고 있지만 그가 분석한 민족국가의 모습은 단순히 ‘부르주아 계급의 집행위원회’로 기능한 것은 아니었다. 실제로 대중적 스포츠 등 전통의 고안을 주도한 민족국가의 위상은 브로일리가 정치운동의 주체로 묘사한 근대국가의 모습과 다르지 않았다. 이와 함께 홉스봄(Hobsbawm and Ranger 1983, 307)이 언급했듯이 전통의 고안이 아래로부터의 자발적 생성과 어떻게 구별되는지도 논쟁적이다. 위로부터의 기획과 조작을 넘어서 아래로부터 만들어지고 확산 되는 전통의 요소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가 쟁점이 될 수 있으며 이러한 대중적 전통을 국가가 어떻게 재구성했는지도 또 다른 관심사가 될 수 있다. 깃발, 스포츠, 국가 상징, 화폐 등 민족의 일상적 재현에서 평범한 사람들이 스스로 자신의 공동체를 상상하는 ‘평범한 민족주의’(banal nationalism)가 이것을 반영해 준다(Billing 1995). 커너(Connor 2004)가 민족주의에 의해 민족이 창조되었으나 대중의 감성과 인식에서 민족은 과거로 더 멀리 날아갈 수 있다고 지적했듯이 모든 것을 위로부터 동원한 결과로 평가하는 도구주의는 재고될 필요가 있다.

2) 출판자본주의와 상상의 공동체

홉스봄이 계급론적 도구주의에 기대어 민족주의를 논한 것과 달리 미국의 인류학자 베네딕트 앤더슨은 자본주의의 문화적 결과물들을 하나의 ‘구성적 실재’로 평가했다. 라틴 아메리카의 저항적 크레올 민족주의에서 민족주의의 기원을 찾은 앤더슨은 출판자본주의에 의해 분출되는 문화적 가공물이자 역사적 실재로서의 ‘상상의 공동체’(imagined communities)에 주목했다. 앤더슨(Anderson 1991, 4)의 비유적 표현에 따르면, 18세기 말에 형성된 자본주의의 가공물들은 “분리된 역사적 힘들의 복합적인 교차점의 자발적인 증류물(distillation)”이다. 증류물이란 것이 액체를 증발시킨 후 다시 냉각시켜 만든 액체라는 점에서 단순히 증발된 액체와 같은 허위의식과는 구분되는 것이다. 민족주의와 민족을 자본주의의 문화적 가공물로 평가한 앤더슨(Anderson 1991, 4)은 자본주의, 인쇄기술, 언어적 다양성의 요소가 결합되는 과정에서 민족주의에 의해 민족이 형성되었다고 보았다. 출판자본주의의 영향력이 전제되는 가운데 민족주의가 민족을 구성하며 다양한 민족국가를 형성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정치적 과정에서 민족은 “내적으로 제한되고 주권적인 것으로 상상되는 하나의 정치적 공동체”가 되는 것이다(Anderson 1991, 6).

또한 앤더슨은 민족이 진짜와 가짜의 이분법이 아니라 '상상되는 방식'에 따라 평가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는 대면접촉의 원시 공동체를 넘어서는 모든 공동체는 상상되는 것이라는 주장이다(Anderson 1991, 6). 인종, 부족, 종족, 민족, 국가 등 모든 공동체가 상상될 수 있다는 뜻이 되며 어떻게 사회적으로 구성되느냐가 공동체의 구성과 운명을 가른다는 것이다. 맑스주의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간 앤더슨의 연구는 실재와 상상의 다양한 결합으로 민족을 해석하는 틀을 제시해 준다. 또한 그의 연구는 민족주의가 라틴 아메리카에서 기원했던 과정을 보여주며 민족주의 연구의 서구 중심주의를 타파한 것에서도 기여했다. 민족주의의 기원은 서유럽 제국의 식민주의에 대항한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의 민족의식에서 비롯되었고 이것은 출판자본주의와 토착언어가 만들어낸 상상의 결과였다는 것이다(Anderson 1991, 43).

그러나 이러한 의의에도 불구하고 앤더슨이 민족주의를 낳은 출판자본주의가 민족주의와 우연히 결합한 것으로 평가한 것은 역으로 민족주의를 낳은 사회적 조건과 관계를 밝히는 것에서 일정한 한계로 남는다(Davidson 2008). 특히 서유럽의 민족주의에 영향을 끼친 크레올 민족주의가 프랑스와 미국의 앞선 모델을 본 뜬 것이라고 언급한 앤더슨(Anderson 1991, 81)의 모순된 주장은 여전히 논쟁적이다. 18세기 후반 라틴 아메리카에서 자본주의 인쇄술과 언어의 숙명적 다양성이 민족의식과 결합한 것은 크레올 선구자들의 민족운동에서 잘 드러날 수 있었다. 그러나 앤더슨(Anderson 1991, 36)이 분석했듯이 1776~1838년 서반구 라틴 아메리카의 민족의식은 민족주의의 문화적 근원인 18세기 서유럽의 출판자본주의가 이식된 결과였다. 앤더슨은 18세기 후반 신대륙에서 자본주의 인쇄술과 토착언어가 결합하는 민족의식의 정치화를 보여주었지만 출판자본주의의 원산지인 서유럽에서 더 오랫동안 점진적으로 때론 폭발적으로 성장했던 민족의식을 간과했다고 볼 수 있다.

3) 자본주의의 불균등 발전과 민족주의

자본주의가 낳은 민족주의를 분석하면서도 홉스봄, 앤더슨과 다른 시각을 제시한 것은 영국의 정치학자 톰 네언이었다. 네언은 민족주의를 산업화의 결과로 설명한 젤너의 주장을 반박하며 근대성의 핵심적 주제는 산업화가 아니라 민족주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네언(Nairn 1975, 4, 8)은 민족주의를 맑스주의가 실패한 아킬레스건으로 평가하고 '자본주의의 불균등 발전(uneven development)'의 산물로 설명했다. 기본적으로 네언(Nairn 1975, 11-15)의 관점에서 민족주의는 불균등 발전하는 자본주의에 그 태생적 원인이 있으며 자본의 확장을 노리는 중심부 국가의 제국주의적 침략과 이에 대응하는 주변부 국가의 저항이 민족주의의 다양성을 낳았던 것이다. 특히 많은 제3세계의 신생독립국들은

서구열강의 식민주의에 대항하는 민족주의를 통해 대중들의 지지를 받았던 반면 포스트식민주의의 과정에서 반대파와 이단자를 억압하는 독재를 행사했다. 따라서 민족주의의 본성은 진보적이면서 퇴보적인 것, 선하면서도 악한 것, 미래를 향하면서도 과거로 후퇴하는 ‘아뉴스’를 상징하는 것이다(Nairn 1975, 18). 또한 네언은 『영국의 붕괴』라는 저서에서 내적인 불균등 발전에 의해 영국이 몰락한 역사를 추적했다. 네언(Nairn 2015, 9, 14)에 따르면 영국은 19세기 중반 이후 산업혁명의 쇠락과 자본주의의 실패뿐만 아니라 귀족국가에 연원하는 신자유주의의 경찰국가적 특성에 의해 쇠퇴했다는 것이다. 자본주의의 내적인 불균등 발전에서 주변부의 정치적 민족주의가 부재하는 가운데 영국의 국가는 스코틀랜드, 웨일즈 등의 저발전 및 저항과 함께 쇠퇴했던 것이다(Nairn 2015, 90, 146).

이 연구들에서 네언(Nairn 2015, 276)은 민족주의를 “자본주의 발전의 지속적인 기능이자 대중적 감성과 이념의 집합체”로 평가했다. 민족주의가 역사적 우연이나 단순한 고안의 산물이 아니라 “긴장과 압박 하에 놓인 인간 사회의 골절 라인(fracture line)”이라는 것이다(Nairn 2015, 277). 이러한 평가는 맑스의 경제결정론과 도구주의적 근대론을 넘어선다는 점에서 그리고 민족주의의 발전을 세계정치경제의 동학에서 분석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민족주의를 낳은 정치적 요인들에 대한 설명이 부족했다는 점은 피할 수 없는 비판의 대상이 될 것이다. 무엇보다도 영국 쇠퇴의 주된 원인이 자본주의의 불균등 발전 때문인지 아니면 국가의 역사적 특성 때문인지가 불분명하다. 그의 저서에서 중심부 국가인 영국이 쇠퇴한 주요인은 민족주의를 강하게 주도하지 못한 계급국가의 특성 그 자체에 있었다. 계급국가, 정치적 민족주의의 부재, 주변부의 종족 갈등이 영국의 쇠퇴를 낳은 것이라면 자본주의와 정치적 요인이 맞물린 결과로 보는 것이 좀 더 합리적일 것이다.

이와 같이 겔너를 비롯해 홉스봄, 앤더슨, 네언의 연구는 맑스의 민족주의론을 넘어 민족주의의 다원화된 분석을 낳는데 기여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서 산업화 혹은 자본주의가 민족주의를 낳았다는 것에는 이견이 없다. 그러나 민족과 민족주의를 낳은 산업화 혹은 자본주의의 역사적 배경에 대한 설명에서 국가 혹은 다른 정치적 요인들이 개입되어 구성된 측면이 간과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러한 논쟁점들은 다시금 민족주의를 낳는 복합적 요인들에 대한 다양한 분석틀을 열어 놓는다. 시공간의 변이에서 나타나는 다양성을 있는 그대로 살펴야 함은 물론이지만 그 개별 사례의 특수성을 평가하고 그러한 개별성을 묶어 전체를 살펴봄으로써 민족주의를 설명하는 방식에서 통합된 관점을 모색하는 것이 의미가 있을 것이다.

3. 자본주의와 민족운동

근대성의 측면에서 홉스봄, 앤더슨, 네언은 자본주의에 의해 구성되는 민족주의를 분석했다. 이에 반해 그린필드는 이들의 명제를 뒤집어 민족주의가 자본주의의 정신을 창출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대척점에서 호로흐(Hroch 1985)는 19세기 중후반을 중심으로 대중적 민족운동이 활성화되는 유럽 주변부 국가의 민족을 분석하며 민족과 민족주의, 민족의식과 계급구조의 상관관계에 주목했다.

민족운동의 성장과 근대 민족의 확립 과정을 분석한 호로흐(Hroch 1985, 26)의 연구에서 ‘지적 관심’(scholarly interest)(A국면), ‘애국적 고취’(patriotic agitation)(B국면), ‘대중적 민족운동’(mass national movement)(C국면)으로 이어지는 민족운동은 반절대주의 투쟁, 산업혁명 및 부르주아 혁명과 함께 자본주의가 등장하는 시기(1단계)와 노동운동의 등장과 함께 자본주의가 확립된 시기(2단계)로 구분되어 평가되었다. 호로흐의 주된 관심은 ‘민족적 부활’(national revival)로 평가되는 B국면의 발전에 있었고, B국면에서 C국면으로 이행하는 특성에 따라 민족운동은 통합형, 지연형, 반란형, 해체형으로 유형화되었다. 이러한 유형화에서 유럽 주변부의 작은 민족들은 18세기 지적 관심의 국면을 거쳐 19세기 애국적 고취의 국면으로 이어진 뒤 다수의 경우 대중적 민족운동의 국면으로 이행하며 근대 민족을 확립했다. 그러나 일부 민족은 대중적 민족운동이 활성화된 이후에 형성되었고, B국면에서 애국적 고취가 모두 성공한 것은 아니었으며 C국면으로 이행하지 못한 사례도 존재했다(Hroch 1985, 23-24). 민족운동과 자본주의의 관계에서는 대부분의 A국면이 자본주의의 1단계에서 형성되었지만 B국면에서 C국면으로의 이행은 1단계와 2단계로 나뉘어져 분포되었다.

자본주의와 민족운동의 복합성을 드러낸 호로흐의 연구는 대중적 민족운동을 통해 근대 민족을 형성했던 사회조직의 동학과 사회구조의 특성을 강조했다. 무엇보다도 B국면에서 특정한 계급구조나 사회조직이 대중적 민족운동에 큰 영향을 끼치지 못했다는 것이다(Hroch 1985, 129, 155). 오히려 민족운동이 대중적으로 성장한 배경에는 사회적 유동성 및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한 요인으로 작동했고 농업혁명, 산업화, 도시화 등 자본주의를 포괄하는 근대성의 폭넓은 구조가 자리하고 있었다(Hroch 1985, 178, 183). 산업화 혹은 자본주의의 폭 넓은 구조 변동에서 정치경제적 위협에 직면한 지역 엘리트들의 민족의식이 타계층과의 연대 및 사회적 유동성에 힘입어 대중적 민족운동으로 확산되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사회적 의식과 관계/조건의 변증법에서 근대 민족은 자본주의나 계급구조 또는 민족주의의 일방적 규정에 의해서가 아니라 산업화와 자본주의의 구조 변동에서 엘리트

및 대중들의 민족운동과 함께 형성되었다는 것이다. 이는 민족주의가 자본주의의 구성물 또는 도구적 발명의 결과라는 도구론적 근대주의의 오류를 성찰하고 정치적, 경제적 근대성이 만나 구성된 민족주의의 복합성을 드러내 준 것이다.

V. 근대 민족주의와 정치경제적 역동성

기존의 민족주의 연구들은 프랑스 대혁명의 정치적 변화 및 산업화/자본주의의 발전을 중심으로 근대성과 민족주의를 탐색했다. 그러나 이 연구들은 민족주의를 낳은 요인을 분석하는 것에서 정치와 경제가 상호 교차하는 특성을 간과했고 정치적, 경제적 근대성의 이분법적 틀에 얽매어 때때로 도구주의적 결정론을 낳기도 했다. 이는 산업화, 자본주의가 민족주의를 낳은 것이냐 아니면 이념, 이데올로기적 독트린, 국가의 정치운동 등 정치적 요인이 민족주의를 낳은 것이냐의 논쟁으로 대변될 수 있다. 이 논쟁에서 근대의 정치적 이념을 중시하는 입장은 18세기 프랑스 기원론에 기반을 두었던 반면 네오맑스주의 이론가들은 18~19세기의 자본주의를 민족주의의 조건적 배경으로 전제했다.

그러나 두 흐름 모두 동전의 한 면만을 설명했다고 할 수 있다. 18~19세기 자본주의의 구성물로서 민족주의를 평가하는 시각은 부분적인 정합성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으로 변화해 온 민족주의의 다양성을 간과했다. 적지 않은 경우 산업혁명과 자본주의가 형성되기 이전에 민족주의가 발생했거나 자본주의가 발전한 이후에도 국가와 엘리트의 정치운동이 민족주의를 창출했기 때문이다. 정치적 근대성을 강조하는 입장 역시 자본주의가 형성된 이후는 물론 그 이전에도 계급이 민족주의에 끼친 영향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다. 예를 들어 폴란드의 농민들이 19세기에 봉건귀족이 일으킨 민족주의 운동에 냉담했던 반면 2차 세계대전의 빨치산 투쟁에는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사례는 정치와 계급의 정체성이 교차하는 복합성을 드러내 준다(임지현 1999, 70-71). 19세기 폴란드 농민들에게는 민족주의의 정치적 이념보다는 봉건귀족에게서 해방되는 계급적 정체성이 더 크게 작동했던 것이다. 이것은 프랑스 대혁명의 역사적 전개 과정에서도 발견될 수 있었다. 18세기 말 대혁명에서 '민족=인민'이란 등식이 등장하여 계급적 정체성이 부르주아 민족주의와 인민주권의 논리 사이에서 강조되었다면, 19세기 후반 나폴레옹 3세의 통치에서는 '민족=국가'라는 등식으로 전환되어 계급을 넘어 민족(국가)의 정체성이 강화되었다(젠킨스 2011, 59, 84-85). 궁극적으로 민족국가라는 정치 공동체로 발전한 민족은 계급적 정체성과 맞물려 경합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다양한 양상에도 불구하고 민족주의를 바라보는 근대론의 대척점에는 정치와 경제의 동학이 얹혀 있다. 이것은 베버리언, 국가 중심적 접근과 맑스주의적, 사회 중심적 접근이 대립한 국가론의 빗바랜 논쟁을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다. 나폴레옹 3세의 국가 자율성을 발견한 맑스(Marx 1963)의 분석에서 민족국가는 신기루처럼 사라지는 실체라기 보다는 정치권력과 자본주의가 만나 구성된 복합물로서 자본주의 구조에 제한되면서도 자신의 자율성을 갖는 행위자였다. 자본주의 국가의 자율성 역시 자본주의와 국가가 결합된 근대성의 복합성을 드러내는 것이다. 따라서 근대성에서 국가/민족을 바라보는 맑스와 베버의 상이한 시각은 실재와 상상의 양상불이란 관점에서 수렴될 수 있다(강진웅 2018, 293-296). 이러한 맥락에서 베버가 국가를 영토적, 합법적, 강제적 공동체로 정의한 것은 앤더슨이 민족을 영토, 주권, 공동체로 정의한 것과 통하는 것이다. 실재와 상상의 양상불로서 민족국가는 정치와 경제가 결합된 근대적 실체로서 그 자체로 특수한 것이면서도 시공간의 변이에 따라 다양하게 변화하는 것이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서도 정치와 경제의 복합적 동학은 어느 한 요소로 분리, 환원될 수 없다는 것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기존의 민족주의 연구들에서도 산업화와 국가 교육, 출판자본주의와 크레올의 사회동원, 중심국의 제국주의적 침략은 정치경제적 동학이 맞물려 진행된 역사적 과정이었다. 정치적 근대성에서 강조된 국가와 엘리트의 정치운동, 독트린, 이데올로기는 자본주의 혹은 경제적 근대성과 떼어서 생각할 수 없으며 그 역도 마찬가지이다. 배링턴 무어(Moor 1993)가 지적했듯이, 정치적인 것을 정치적인 것으로만 평가하고 경제적인 것을 경제적인 것으로만 본다면 근대성의 복합적 세계에 다가설 수 없을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민족주의의 역사적 기원으로 불리는 프랑스 대혁명은 앙시앵 레짐에 대한 시민계급의 국민적 저항이자 부르주아 계급의 경제적 도약으로도 볼 수 있다. 프랑스 대혁명을 정치적인 시민혁명으로만 보는 것은 대혁명이 자본주의의 발전 속에서 파리코된 등 계급갈등을 낳은 측면을 간과하는 것이다. 신대륙의 크레올 민족주의 역시 서유럽의 인쇄술이 이식된 자본주의의 구조와 크레올 엘리트의 정치운동이 대중의 지지와 맞닿았기에 가능한 것이었다. 대영제국의 쇠퇴라는 역사적 변화 또한 자본주의의 불균등 발전과 정치적 민족주의의 부재가 얹혀 서서히 진행된 것이었다. 따라서 이 모든 것을 자본주의가 결정한 것으로 보는 것은 지나친 일반화라 할 수 있다. 더욱이 그 기원을 근세로 확장하면 자본주의의 결정론의 가설은 쉽게 허물어진다. 그러나 자본주의와 계급의 동학이 민족주의를 이끌 수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정치적 요인들이 작동한 많은 사례에서 계급적 요인이 개입되거나 정치적 특성을 희석시킨 예들을 쉽게 찾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전근대 및 식민지 조선의 민족주의에서도 정치적 저항이 계급적 갈등으로 희석되었던 것이 다반사

였다.

이와 함께 정치와 계급의 정체성이 얽힌 문제는 근대 이래로 종족, 인종, 젠더 등의 정체성의 정치로 확대되어 그 복잡성이 심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인종을 예를 들자면 근대성의 산물로 등장한 민족과 인종은 상호 관련되지만 민족이 인종을 정치적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Arendt 1973; Balibar 1991; Marx 1998), 둘 사이의 상호작용에서 인종이 강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Omi and Winant 1994; Winant 2001). 또한 계급의 정체성이 이 관계에 개입된다면 민족과 계급의 관계는 더욱 복잡해진다. 자본주의를 민족주의의 근원으로 바라 본 앤더슨과 네언의 사이에서도 이러한 입장차가 발견된다. 앤더슨(Anderson 1991, 148-149)은 인종주의가 민족이 아닌 계급의 이데올로기에 근원을 두고 있다고 주장했던 반면 네언(Nairn 1975, 19)은 인종주의를 민족주의의 부산물로 보았다. 앤더슨(Anderson 1991, 150)은 인종주의가 19세기 유럽의 관주도 민족주의와 식민주의의 전파 속에서 기본적으로 유럽 밖에서 발전했다고 주장했다. 크레올 엘리트들은 원주민보다 우월하다는 인종주의를 식민국가에 주입하는데 주력했고, 따라서 크레올 국가의 내부에서 조성된 인종주의는 유럽과 크레올 사이의 민족 갈등보다는 크레올 지배층과 원주민 피지배층 사이의 계급 갈등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이다. 인종주의가 때때로 애국심과 같은 민족주의의 형상으로 나타나지만 그 본질은 계급적 정체성이 좌우한다는 것이다(Anderson 1991, 149).

하지만 앤더슨의 주장은 동전의 어느 한 면만을 본 것이다. 물론 인종주의와 반인종주의의 대립으로 평가되는 남북전쟁을 예를 들자면 그 배경에 산업 및 농업 자본가의 권력이 숨어 있다는 점에서 앤더슨의 주장은 일리가 있다. 그러나 인종의 얼굴을 한 계급 갈등 역시 내전을 통해 통일된 민족 공동체를 형성하고자 한 민족주의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다. 근대 프랑스와 독일에서도 인종 정체성은 계급과 민족 정체성 모두와 관련되었다. 프랑스의 경우 대혁명의 여파에서 귀족 계급이 인종주의를 통해 민족과 함께 성장하는 시민 계급과 갈등했다면, 외국의 침략에 대항한 독일의 인종주의는 계급을 넘어 민족을 통합시키는 기능을 담당했다(Arendt 1973, 161, 165). 나치즘의 유대인 학살 등 수많은 종족, 인종 분쟁 역시 민족국가의 경계 안팎에서 계급을 초월하여 민족을 재구성하며 진행되었다. 따라서 경제적 계급이 인종주의와 관련되는 것은 분명하지만 이것이 인종주의를 낳은 근본 요인이 될 수는 없는 것이다(Marx 1998, 277). 그렇다고 해서 민족이 여타 정체성을 결정한다는 인과관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칼훈(Calhoun 1997, 43)이 지적했듯이 독립된 내부 인자들로 구성된 정체성 중에서 민족 정체성은 많은 경우 계급을 포함하는 여타 정체성을 압도하는 힘을 갖고 있다. 국가와 자본주의가 결합되어

민족을 구성하는 민족주의를 창출하는 것이며, 민족은 계급 및 타정체성에 의해 영향을 받으면서도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현대 사회로 이어지는 근대성의 중요한 측면으로서 민족주의는 정치혁명과 자본주의 등 근대의 정치경제적 변동을 통해 다양한 방식에서 민족(국가)의 정치 공동체를 창출한 정치적 이념이자 사회운동이다. 다양한 변이에도 불구하고 동서를 통틀어 민족주의는 근대 민족을 낳고 재구성해 온 정치운동으로 평가할 수 있다. 자본주의와 계급의 정체성은 이 사회운동에 직간접으로 영향을 끼치는 제도적 조건과 배경이 되는 것이다. 민족주의가 하나의 정체를 형성하는 정치적 이념과 운동일 때 이를 이끄는 국가와 엘리트의 사회운동을 평가해야 하며 이것에 영향을 미치는 자본주의와 계급의 동학을 고려해야 한다. 식민지 근대성과 분단체제를 경험한 한국의 사례에서도 민족주의의 정치경제적 복합성은 예외가 될 수 없다. 따라서 우리는 개별 사례에서 나타나는 특수성을 인정하는 동시에 전체의 분석틀에서 정치와 경제의 근대적 복합물로 등장하여 타정체성과 연계, 발전하는 민족주의의 역동성을 주목해야 한다.

Ⅵ. 나오며

그동안 민족주의 이론에서는 근원론과 근대론 사이의 오랜 논쟁과 함께 근대론 내에서 국가와 자본주의의 요인이 어떻게 민족주의를 낳았는가 쟁점이 되었다. 겔너와 스미쓰(Gellner and Smith 1996)가 벌인 '네이션은 배꼽을 갖고 있는가'라는 논쟁에서 잘 드러나듯이, 근원론과 근대론의 핵심 쟁점은 민족이 원초적 뿌리를 갖는 영속적 실체이나 아니면 근대에서 만들어진 정치 공동체이냐의 문제였다. 그러나 다양한 결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민족주의가 근대에서 형성된 산물이란 점에는 큰 이견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대론을 중심으로 16세기 영국, 18세기 프랑스, 18세기 라틴 아메리카, 19세기 독일 등 민족주의의 기원을 둘러싼 논쟁이 지속되었고 근대적 현상으로 나타난 민족주의의 형성 요인을 둘러싼 단절적 인식과 환원론적 분석이 만연했다. 이것은 근대 민족 공동체를 형성하는 이념과 운동으로서 민족주의의 배경과 조건을 찾는 작업이었지만 적지 않은 경우 정치적, 경제적 근대성을 중심으로 민족주의를 한 방향에서 이해하는 결과를 낳았다.

이러한 이분법적 시각은 민족을 자본가 계급의 허구적 이데올로기로 보는 맑스의 논리와 관념론의 관점에서 민족을 하나의 실재로 평가하는 헤겔의 관점 사이에서 형성된 것이었다. 맑스와 헤겔류의 극단주의는 실재와 상상, 자연/사물과 의지/이념의 양상틀로 형성되는

민족을 한 쪽으로 극단화시켜 왔고, 이러한 경향은 근원론과 근대론, 객관론과 주관론 사이에서 그리고 근대론 내의 정치와 경제를 강조하는 입장에서 두드러졌다. 특히 상상, 의지, 이념의 산물로 민족을 평가하는 근대론은 정치와 경제, 국가와 자본주의, 국가와 계급이라는 단절적인 시각을 통해 민족주의를 분석해 왔다. 기존의 분석과 이론에서 프랑스 대혁명의 정치적 이념과 운동을 강조한 흐름과 산업혁명과 함께 한 자본주의의 구성물로 바라보는 흐름은 모두 18~19세기에 민족주의가 형성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에서 공통점을 가졌다. 그러나 콘, 케더리, 브로일리 등의 이론에서 경제적 근대성의 측면이 간과된 측면은 홉스봄, 앤더슨, 네언 등의 이론에서 정치적 근대성이 간과된 거울을 반영했다. 이러한 측면에서 국가와 정치가 민족주의의 유일한 창조자라고 주장하거나 자본주의와 계급이 필수적인 조건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여러 가능성 중의 하나일 뿐 전체를 일반화하는 논리가 될 수 없다. 정치와 경제의 복합적인 구성물로서 민족주의는 국가의 정치운동과 자본주의가 결합되어 타정체성과 연계되어 끊임없이 변화하는 근대성의 산물이다. 민족 정체성을 활용하는 국가의 정치운동이 계급의 정체성과 얽혀 발전하는 것이며 이러한 특성은 인종, 종족, 젠더 등에서 다면적으로 확대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이 논문은 정치와 경제의 근대적 복합물이자 타정체성과 연계되는 역동적 산물로서의 민족주의를 탐색했다. 정치적 근대성이 좌우한 것으로 평가받는 프랑스의 민족주의 역시 그 역사적 동학에서는 민족과 계급의 정체성이 경합한 결과였고 영국의 민족주의 역시 정치혁명과 산업혁명이 결합된 과정이었다. 이러한 정치경제적 동학은 비서구 한국의 식민경험과 분단체제에서도 폭넓게 적용될 수 있으며 탈민족주의가 침투하는 다문화 한국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근대의 구성물로서 정치와 경제를 통합적으로 사고하여 민족주의를 탐색하는 것은 서구와 비서구의 다양한 민족주의와 다변화하는 민족주의의 역동성을 이해하는 대안을 제시해 줄 것이다.



- 강진웅. 2018. 민족의 사회학: 네이션과 종족성의 관계에서. 사회와 역사 117, 287-323.
- 루소, 장자크. 이재형 역. 2013. 사회계약론. 문예출판사.
- 박의경. 1995. 헤르더(Herder)의 문화민족주의: 열린 민족주의를 위한 시론. 한국정치학회보 29(1), 331-352.
- 벨러, 한스 올리히. 이용일 역. 2007. 허구의 민족주의(Nationalismus). 푸른 역사.
- 임지현. 1999. 민족주의는 반역이다: 신화와 허무의 민족주의 담론을 넘어서. 소나무.
- 켄킨스, 브라이언. 김인중 · 마은지 역. 2011. 프랑스 민족주의: 1789년 이후의 계급과 민족. 나남.
- 피히테, 요한 고틀리프. 황문수 역. 1987. 독일 국민에게 고향. 범우사.
- 헤겔, 게오르크 빌헬름 프리드리히. 권기철 역. 2008a. 역사철학강의. 동서문화사.
- _____. 임석진 역. 2008b. 법철학. 한길사.
- Anderson, B. 1991. Imagined Communities: Reflections on the Origin and Spread of Nationalism. Verso.
- Arendt, H. 1973. The Origins of Totalitarianism. Harcourt Brace Jovanovich.
- Armstrong, J. 1982. Nations Before Nationalism.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Press.
- Balibar, E. 1991. Racism and nationalism. E. Balibar and I. Wallerstein eds. Race, Nation, and Class: Ambiguous Identities. Verso, 37-67.
- Billig, M. 1995. Banal Nationalism. Sage.
- Breuilly, J. 1994. Nationalism and the Stat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Calhoun, C. 1997. Nationalism.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 Connor, W. 2004. The timelessness of nations. Nations and Nationalism 10(1/2), 35-47.
- Davidson, N. 2008. Reimagined communities. International Socialism 117.
- Geertz, C. 1973. The Interpretation of Cultures. Basic Books.
- Gellner, E. 1983. Nations and Nationalism. Basil Blackwell.

- Gellner, E. and A. Smith. 1996. The nation: Real or imagined?: The Warwick debates on nationalism. *Nations and Nationalism* 2(3), 357-370.
- Giddens, A. 1985. *The Nation-State and Violence*.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Gramsci, A. 1995. *Further Selections from the Prison Notebooks*.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 Greenfeld, L. 1992. *Nationalism: Five Roads to Modernity*. Harvard University Press.
- _____. 2001. *The Spirit of Capitalism: Nationalism and Economic Growth*. Harvard University Press.
- Grosby, S. 2005. The primordial, kinship and nationality. A. Ichijo and G. Uzelac eds. *When is the Nation?: Towards an Understanding of Theories of Nationalism*. Routledge, 56-78.
- Hobsbawm, E. 1990. *Nation and Nationalism since 1780: Programme, Myth, Reality*. Cambridge University Press.
- Hobsbawm, E. and T. Ranger. eds. 1983. *The Invention of Traditi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 Hroch, M. 1985. *Social Preconditions of National Revival in Europe: A Comparative Analysis of the Social Composition of Patriotic Groups among the Smaller European Nations*. Cambridge University Press.
- _____. 1998. Real and constructed: The nation of the nation. J. Hall ed. *The State of the Nation: Ernest Gellner and the Theory of Nationalism*. Cambridge University Press, 91-106.
- Hunt, L. 1984. *Politics, Culture and Class in the French Revolution*.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Kedourie, E. 1993. *Nationalism*. Blackwell.
- Kohn, H. 1967. *The Idea of Nationalism: A Study in Its Origins and Background*. Collier Books.
- Mann, M. 1993. *The Sources of Social Power: The Rise of Classes and Nation-States*,

- 1760-1914, Vol. II. Cambridge University Press.
- Marx, A. 1998. Making Race and Nation: A Comparison of the United States, South Africa, and Brazil. Cambridge University Press.
 - Marx, K. 1963. The Eighteenth Brumaire of Louis Bonaparte. International Publishers.
 - _____. 1975. A contribution to the critique of Hegel's philosophy of right. Karl Marx: Early Writings. Vintage Books, 243-257.
 - Marx, K. and F. Engels. 1970. The German Ideology. International Publishers.
 - _____. 2002. The Communist Manifesto. Penguin Books.
 - Moor, B. Jr. 1993. Social Origins of Dictatorship and Democracy: Lord and Peasant in the Making of the Modern World. Beacon Press.
 - Nairn, T. 1975. The modern Janus. New Left Review 1/94, 3-29.
 - _____. 2015. The Break-Up of Britain: Crisis and Neo-nationalism. Common Ground Publishing.
 - Omi, M. and H. Winant. 1994. Racial Formation in the United States. Routledge.
 - Renan, E. 1990. What is a nation?. H. Bhabha ed. Nation and Narration. Routledge, 8-22.
 - Schulze, H. 1996. States, Nations and Nationalism: From the Middle Ages to the Present. Blackwell.
 - Smith, A. 1986. The Ethnic Origins of Nations. Blackwell.
 - _____. 1991. National Identity. University of Nevada Press.
 - _____. 2009. Ethno-symbolism and Nationalism: A Cultural Approach. Routledge.
 - Stalin, J. 1953. Marxism and the national question. J. Stalin Works 2. Foreign Languages Publishing House, 300-381.
 - Tilly, C. 1990. Coercion, Capital, and European States, AD 990-1990. Basil Blackwell.
 - _____. 1994. States and nationalism in Europe 1492-1992. Theory and Society 23(1), 131-146.

- Trevor-Roper, H. 1983. The invention of tradition: The Highland tradition of Scotland. E. Hobsbawm and T. Ranger eds. The Invention of Traditi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15-41.
- Weber, M. 1958. From Max Weber: Essays in Sociology. Oxford University Press.
- Winant, H. 2001. The World Is a Ghetto: Race and Democracy since World War II. Basic Books.

● 투고일: 2020.12.04. ● 심사일: 2020.12.13. ● 게재확정일: 2020.12.30.

| Abstract |

The Modernist Reflection on Nationalism : The Modern Dynamics of Politics and Economy

Kang Jinwoong (Kyonggi University)

Through a theoretical reflection of the modernist approach to nationalism, this article aims to review theories of nationalism related to modernities and articulate the dynamics of nationalism as a political-economic construction. Nation and nationalism were evaluated through an extreme point of view between Hegelian idealism and the Marxist notion of ideology. In such dichotomous approaches, nationalism as a product of political modernity was viewed as political idea, ideological doctrine, and the state's political movement. In addition, existing research focused on the causal relationship between industrialization/capitalism and nationalism in terms of economic modernity. Through defining nation as an ensemble of reality and imagination, this article explores modernity and nationalism in the interaction between politics and economy, and state and class, and emphasizes the dynamics of nationalism that operates as a power fused into other identities.

〈Key words〉 modernist approach, modernity, nation, nationalism, political-economic construction